

# 국내 대학생들의 오픈코스웨어(OpenCourseWare) 이용행태 조사

## Understanding Use Behaviors of OpenCourseWare(OCW) Content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A Preliminary Study

김민정, 성균관대 정보관리연구소, mj.4110@gmail.com

김소정, 성균관대 정보관리연구소, sjmakesuhappy@gmail.com

Min-Jung, Kim, SKKU Institute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So-Jung, Kim, SKKU Institute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최근 고등교육의 기회와 혜택이 일반인에게 평등하게 열려야 한다는 세계적 취지로 대학 및 비영리 기관에서는 다양한 강의 콘텐츠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오픈코스웨어(OpenCourseWare, OCW)가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어 그 이용 또한 활발한 경향을 띤다. 이에 본 연구는 오픈코스웨어(OCW) 정보자원이 어떻게 이용 및 활용되는가를 알아보고자 국내 A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대면 인터뷰를 수행하여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용 행태 유형을 이용측면, 콘텐츠 활용측면, 이용시 만족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오픈코스웨어(OCW) 연구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오픈코스웨어(OpenCourseWare) 개요

2000년대 초반에 출발한 공개교육자원 운동(Open Education Resource Movement)으로 고등교육기관이 더 이상 상아탑 안에 지식을 가두어 두지 않고 고등교육의 기회가 국경과 계층을 넘어 일반인에게 평등하게 열려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사명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대학 및 교육 기관들이 웹상에 무료로 기관의 교육자원을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전 계층이 누릴 수 있는 교육평등의 길이 열렸다(양성혜 2010).

이러한 시대조류의 한 일종으로 무료로 공개되는 고등교육 자료인 오픈코스웨어(OCW)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픈코스웨어 컨소시엄 OCWC (OpenCourseWare

Consortium)의 정의에 따르면 OCW (OpenCourseWare)는 무료이며 고등교육자료를 하나의 강의 코스로 조직한 오픈 디지털 출판물이다. OCW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실제 강의 영상이 추가 되긴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강의 노트, 참고 문헌, 과제 및 시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Jon Paul Potts, 2005).

예컨대, MIT 대학은 학내에서 제공되는 일반 강의를 비롯한 여타 강의 자료를 웹상에서 무료로 제공하여 전 세계인에게 교육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MIT OCW(<http://ocw.mit.edu>)를 운영 중에 있다. 2002년 23학과의 32과목 강의가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약 2100여개의 코스가 등록되어 있다. 올해 2012년에는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하버드대학과 MIT의협력형태인 EdX(<http://www.edxonline.org/>)를 신설하여 두 학교에서 개설되는 강의를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진

행 중이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해 아이디어의 확산과 공유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동영상 강연 서비스인 TED (Technology, Education, Design)는 전세계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OCW의 일종이다. 이는 그간 대학에 제한된 학문적 지식의 울타리를 넘어 교양, 실용 학문 중심의 강의를 지원하여 일반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에 따라 국내외의 많은 대학 및 기관에서도 교육 자료를 개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국내의 경우 2007년 고려대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KOCW와 숙명여자대학교의 SNOW, 한양대학교의 HOWL, 성균관대학교의 SKKOLAR 등이 국내외 대학의 OCW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MIT OCW의 국가별 접속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이용국가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수 대비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접속하는 국가이기도 하다(KERIS, 2010). 그러나 이처럼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현재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등의 이용자 행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도된 바가 없다. 즉, 강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습득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실증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식 습득과 정보공유 및 활용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경향이 된 OCW 이용행태를 알아볼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OCW 이용행태 조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행태를 알아보는

기초연구이며, 아울러 앞으로 문헌정보학에서 연구될 수 있는 OCW 강의 콘텐츠 제공 및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연구 등 추가 연구를 고려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오픈코스웨어(OCW)가 어떻게 이용되며,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증 사례 조사연구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대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의 학습 습관이 평생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점, 학습을 위한 정보의 활용이 높은 시기라는 점을 가정하여 연구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일대일 면대면 인터뷰에서 사용한 질문은 MIT OCW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05 Evaluation Finding Report와 Ceylan and Inceoglu(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조사 항목을 수합, 교정하여 총 25개의 질문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국내 서울소재 A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공지 하여, OCW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자주 이용하는 총 1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30분간의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 3. 면담 분석 결과

본 연구에 대한 결과분석은 면담 과정 중 이용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행태를 중심으로 크게 OCW 이용측면, OCW 콘텐츠 활용측면, 이용자 만족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

하고자 한다.

### 3.1 OCW 이용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표 1> OCW 이용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OCW 이용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에서 교수님을 통해 OCW를 인지하고 접하게 됨</li> <li>■ 주로 이용하는 OCW는 TED, YouTube 대학강의, iTunesU</li> <li>■ 이용 시간 및 빈도는 콘텐츠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 일반 전문 강의 경우 1회당 40분/ 교양 흥미 위주의 강의 경우 20분</li> <li>■ 이동 중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는 빈도가 많음</li> <li>■ 주제 전문성의 깊이나 동영상 재생 시간의 길이에 따라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각각 이용하는 패턴을 보임</li> <li>■ 주제 전문성의 깊이나 동영상 재생 시간의 길이에 따라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각각 이용하는 패턴을 보임</li> <li>■ 브라우징 방식을 이용해 특정 자료로 접근</li> <li>■ 콘텐츠 선택 시 언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그러나 한국어 자막 제공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임</li> </ul>

면담 학생의 대부분이 전공의 구분 없이 대학에서 개설된 정규 강의에서 교수님이 수업 중 OCW 영상을 소개하는 방식을 통해 OCW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OCW는 대부분의 학생이 한 강의 당 20분 정도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TED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YouTube에서 제공하는 대학 강의를 이용했고, 애플사의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를 가진 학생들은 iTunesU를 통해 대학 강의를 이용했다.

평균적인 이용 횟수는 일주일에 3-4회이고 1회 이용 시간은 5분에서 180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 번 이용할 때 TED 동영상을 한 두개 보는 경우에는 5분에서 20분 정도의 비교적 짧

은 시간을 들였지만 대학의 정규 강의 코스를 듣는 경우에는 한 강의 당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한번 이용할 때의 이용시간이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주제전문성이나 깊이에 따라 이용하는 미디어에 차이를 보였다. 비교적 시청시간이 짧은 TED강의를 보는 경우 한하여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대학 강의를 동영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보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이동 중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TED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영상 켜놓고 이동 중에 하면 되는데요. 렉쳐(전공수업)같은 것, 되게 심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필기를 하면서 해야 해서 그때는 컴퓨터로 주로 많이 해요.(화학, S)

학생들 대부분이 통학 중 이동 시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TED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TED에서 제공하는 흥미롭고 실용적인 주제, 짧은 강연시간 등 TED의 특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공과 관련한 강의를 보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시간을 할애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강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찾을 때는 컴퓨터로 찾고,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는 찾기 힘들니까.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예요. 제가 분당에 살아서 이동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걸 하니깐요.(정치외교, L)

특정자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이용자는 해당 OCW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내부에서 훑어보기 검

색 방식인 브라우저를 통해 자료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 검색창이 준비되어 있지만 질의어를 통해 검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제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연관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그래서 브라우저, 그 다음에 질의 검색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경영, J)

Ted 안에 Theme이라는 여러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분야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영문, K)

특정 콘텐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언어적인 제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면담 학생 대부분이 언어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했다. 기존의 OCW강의 대부분의 자료가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목적이 영어 학습인 경우가 많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너무 전문적이거나 빠른 말하기 속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영어로 된 음성과 한국어 자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 3.2 OCW 콘텐츠 이용 및 활용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표 2> OCW 콘텐츠 이용 및 활용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OCW 콘텐츠 이용 및 활용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는 전공과 관련된 것, 교양 등 평상시 호기심을 위한 것 모두를 비교적 균등하게 이용</li> <li>■ 외국어 공부, 자기계발, 아이디어 발굴, 부족한 지식 습득을 궁극적 목적으로 이용</li> <li>■ OCW 강의를 통해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이용</li> </ul>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의 주제범위는

전공과 관련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공과 관련된 강의라 해도 교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보다는 전공과 관련한 내용을 비교적 쉽고 직관적인 설명으로 제공하는 강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띠었다. 반면 전공과는 다른 학문이라도 평상시 각자 흥미로워했던 주제를 선택하거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도 선호했다.

강의를 듣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다. 자기계발, 아이디어 발굴, 부족한 지식 습득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외국어 공부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OCW에서 제공하는 강의 대부분이 영어 등 외국어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계발 쪽이 강하죠. 아이디어도 얻고. 가장 주는 영어 실력 쌓는 것이고. 그 이외의 명사들이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멋있고.... 뭔가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어요.(영문, K)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하다고 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저한테는 가장 좋으니까 TED라고 생각이 되요. 또 특히 영어 발표 수업을 할 때 그 사이트를 계속 보면서 영어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고요.(경영, L)

습득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 가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근거 정보원으로 활용한다고 답했다. 연구자가 연구에 인용을 넣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강의 속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냥 대학생인거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그 사람들(강연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용하는 거  
죠. (유학, L)

### 3.3 OCW 이용 시 만족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표 3> OCW 이용 시 만족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OCW 이용 시 만족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CW 강의가 학업과 생활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li> <li>■ OCW에 만족감을 나타냄. 유익한 컨텐츠 내용, 시공간적 제약을 넘는 접근성과 외국어 공부에 장점, 다만 적합한 정보 선택의 어려움</li> <li>■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강의는 지인들과의 SNS를 통해 공유하여 OCW 강의가 확산</li> </ul>

OCW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강점들, 예를 들어 국외 우수 강의 공개, 다양한 주제범위 제공과 실용성 등을 이용자가 생활에서 체험함으로써 OCW를 굉장히 도움을 주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기존 학업 패턴과는 다르게 OCW 듣고 하면서 주제를 엮는 거 있잖아요. 전혀 달랐던 거 묶어보는 것들.(화학, S)

학업에서는, 교과서랑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같은 분야지만 더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은 됐어요. (문헌정보, S)

면담 학생 전원이 OCW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무료로 전문적인 정보를 비롯하여 유명인사의 생각이나 해외 석학들의 강의를 웹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강점이라고 평가 했으며, 국내 대학들에 개설된 외국어 강의에 적응하고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짧은 시간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제가 하버드에 안 가도 한국에서 돈을 안 내고도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양질의 강의를 무료로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경영, LG)

일단 영어로 된 강의를 편하게 본다는 것 때문에 영어공부는 확실히 잘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학문 분야의 트렌드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게 얻는 거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경제적이다.(화학, S)

하지만 OCW에 등록되어 있는 강의들 중에서 적합한 정보원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다소 있었다.

예를 들면, 저는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되나 그런걸 알고 싶어서 성공 Success 이런 항목을 누르면 그냥 성공이란 뭐 여행이다. 이렇게 자기 철학만 펴는 동영상들이 많은 것이예요. 주제를 좀 더 세분화되거나 좀 더 구체화시키거나 쉽게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영문, K)

또한 OCW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해당 주제에 관해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깊이 있는 학습과 정보공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Facebook 계정이 있었으며, Facebook을 통해 좋은 강의를 하이퍼링크 하여 공유하거나 ‘좋아요’ 버튼 누르기 혹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주소를 복사해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픈코스웨어(OpenCourseWare, OCW)로 지칭되는 강의자원을 국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며 활용하는가를 알아보고자 일대일 면대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면담 내용을 종합 정리, 분석하여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일반적인 이용 성향을 조사해 보았다. 면담내용을 종합적으로 개괄하자면,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 학습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였으며 더불어 자신이 흥미롭게 여기는 특정 주제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 강의를 보았다. 나아가 이렇게 얻어진 지식을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근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경향을 띠었다.

면담내용을 종합적으로 개괄하자면,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 학습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였으며 더불어 자신이 흥미롭게 여기는 특정 주제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 강의를 보았다. 나아가 이렇게 얻어진 지식을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근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경향을 띠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OCW에 대한 일반화된 이용행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순 없다. 다만, 이러한 콘텐츠를 비교적 자주 유용하게 이용하는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OCW 연구에 기초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양성혜. 2010. 오픈코스웨어(OCW)의 국내 스

페인어 교육 활용 방안.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1(1): 247-26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OCW 국내외 사례』. 서울: 동연구원.  
 한지연. 2011.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의 OpenCourseWare 개발 및 운영사례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Jon Paul Potts. 2005. MIT대학의 OpenCourseWare : 지식과 정보공유의 새로운 모델, 『대한토목학회지』. 53(9): 90-96.  
 Bossu, C. and Tynan, B. 2011. "OERs: new media on the learning landscape", *On the horizon*, 19(4): 259-267.  
 Ceylan, B. and İnceoğlu, M. M. 2010. "Learning environments: Ege University OpenCourseWare Project (EUADM)."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4172-4176.  
 MIT OpenCourseWare. 2006. *2005 Program Evaluation Finding Reports*  
 EdX. [online]. [cited 2012. 8. 1]. <<http://www.edxonline.org/>>.  
 KOCW. [online]. [cited 2012. 8. 1]. <<http://kocw.net>>.  
 MIT OCW. [online]. [cited 2012. 8. 1]. <<http://ocw.mit.edu/index.htm>>.  
 OCWC. [online]. [cited 2012. 8. 1]. <<http://www.ocwconsortium.org>>.  
 TED. [online]. [cited 2012. 8. 1]. <<http://www.ted.com>>.  
 YouTube Edu. [online]. [cited 2012. 8. 1]. <<http://youtube.com/education>>.